



특히 영아기는 언어발달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어휘습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Hoff와 Naigles(2002)에 의하면 어휘습득은 어휘의 분절, 새로운 어휘와 참조물 사이의 빠른 대응, 더 길게 확장된 어휘입력 과정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휘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영아 간의 개인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8개월에 한국 영아들의 평균 표현어휘의 수는 75개였지만 가장 적게는 표현어휘가 3개 뿐인 영아부터 가장 많게는 284개의 표현어휘를 가진 영아도 있다(장유경, 2004). 어휘 수에 있어서의 개인 간 차이는 어휘 폭발기를 지나면서 더 증폭된다(장유경, 홍세희, 이근영, 2007).

어휘습득에서의 개인차와 관계되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다. 영아의 표현적 스타일과 출생순위(Nelson, 1973), 문화적 차이(Fernald & Morikawa, 1993)에 의해 어휘습득의 개인차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언어발달은 성차가 보고되고 있는 몇 영역 중 하나로 초기 어휘습득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빠르다(장유경, 2004; Caselli, Casadio, & Bates, 2001; Huttenlocher, Haight, Bryk, Seltzer, & Lyons, 1991; Koeninsknecht & Friedman, 1976; Morisset, Barnard, & Booth, 1995; Schachter, Shore, Hodapp, Chalfin, & Bundy, 1978).

성차에 비해서는 덜 일관적이지만 영아의 기질이 어휘습득과 관계된다는 결과들도 있다(장유경, 이근영, 최유리, 이순목, 2007; 장유경, 이순목, 최유리, 2007; Bloom, Beckwith & Capatides, 1988; Dixon & Shore, 1997; Dixon & Smith, 2000). 예를 들어, 어휘학습이 빠른 영아와 느린 영아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중립적인 정서상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타나는가에 달렸다는 입장(Bloom, Beckwith & Capatides, 1988)도 있고 중립적 정서보다는 긍정적 기분이 어휘발달과 관계된다는 입장도 있다.

이외에도 적응성, 지속성과 같은 기질차원이 표현어휘의 발달을 예언할 수 있다는 주장(Dixon & Shore, 1997; Dixon & Smith, 2000)도 있다. 어휘발달의 초기에 한국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장유경, 이순목, 최유리, 2007; 장유경, 이근영, 최유리, 이순목, 2007; 장유경, 이근영, 2006)에서는 18개월에는 긍정적 기분이, 24개월에는 긍정적 기분과 함께 적응성, 활동성의 기질 차원이 표현어휘 발달과 관계되었다. 따라서 어휘습득의 단계에 따라 연령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기분 뿐 아니라 기질의 더 다양한 차원들이 관계되는 것 같다.

영아가 청각자극을 유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초기 어휘발달과 관계된다(장유경, 최유리, 이근영, 2007). 언어이해를 위해서는 짧은 시간동안 들은 정보를 유지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영아가 청각 자극을 이해하는 기술이 후의 언어발달과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빠른 청각처리, 음운적 지식, 음운 분리의 능력이 12개월 이후 어휘발달과 관계되었다(Benasich & Tallal, 2002; Kuhl, Conboy, Padden, Nelson, & Pruitt, 2005).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음성지각을 측정하는 과제를 사용해서 언어 이전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 영아들의 연구에서 24개월 영아들의 표현어휘는 영아들의 말소리 따라하기, 패턴반복, Corsi블록 과제 등 청각기억 과제의 수행과 관계되었고 특히 말소리 따라하기는 표현어휘수와 .57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장유경, 최유리, 이근영, 2007).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특성이 어휘습득의 개인차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량이 많을수록 영아의 어휘발달이 촉진되었다(장유경, 이근영, 곽금주, 성현란, 2003; Hart & Risley, 1995;

Hoff & Naigles, 2002; Huttenlocher, Haight, Bryk, Seltzer, & Lyons, 1991). 단순한 입력의 양 뿐 아니라 언어적 입력의 유형 또한 영아의 어휘 발달에 영향을 준다(장유경, 홍세희, 이근영, 2007;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Hart & Risley, 1995; Whitehurst, Falco, Lonigan, Fischel, Debaryshe, Valdez-Menchaca, & Caufield, 1988). 어머니의 질문하기는 영아들의 언어적 행동을 격려하고 말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영아의 어휘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반복, 모방, 확장을 통한 피드백도 영아의 어휘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국 영아에 대한 연구에서도 영아의 언어적 반응에 대한 피드백과 질문하기를 많이 할수록, 금지와 제지는 적게 할수록 어휘발달이 촉진되었다(장유경, 홍세희, 이근영, 2007;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이외에도 13~24개월 영아에게 어머니가 명사와 관형사를 많이 사용할 때 영아의 표현어휘수가 많았고(장유경, 임현정, 광금주, 2004), 성인이 문법적으로 복잡한 문장을 사용할 때(Huttenlocher, Vasilyeva, Cymerman, & Levine, 2002) 언어발달이 촉진된다는 결과도 있다.

한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어머니와 영아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양과 내용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영아의 어휘습득에 영향을 준다(이지연, 광금주, 2008; Brody, 1968; Dunn, Wooding, & Herman, 1977; Hoff-Ginsberg, 1998). SES가 높은 어머니들은 SES가 낮은 어머니들에 비해 영아에게 더 많은 말을 했으며 더 다양한 어휘와 복잡한 문법을 사용하고 대화를 유도하는 질문을 더 많이 사용했다(Hoff-Ginsberg, 1998).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에 비해 사물의 이름을 더 명시적으로 가르쳤으며(Brophy, 1970) 중류층 어머니들은 노동자층 어머니들에 비해 인과관계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다

(Brophy, 1970; Sigel, McGillicuddy-De Lisi, & Johnson, 1980). 우리나라 유아 대상의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라 저소득층에서는 어머니의 학력과 물리적 학습자극이, 중/고소득층에서는 부모의 학습적 행동이 유아의 언어발달을 예측하였다(이지연, 광금주, 2008).

가정의 환경 중에서도 특히 책읽기 경험이 영아의 어휘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신혜영, 김명순, 2008; 장유경, 최유리, 이근영, 2007; Bus, van Ijzendoorn, & Pellegrini, 1995; DeBaryshe, 1993; Nimio, 1983; Sénéchal, LeFevre, Hudson, & Lawson, 1996). 책을 읽는 동안 영아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새로운 어휘들을 경험하게 되고, 특히 영아기 책 읽기의 특징인 반복읽기 동안 새로운 어휘를 충분히 익히고 기억할 뿐 아니라 긴 시간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Sénéchal, LeFevre, Hudson, & Lawson, 1996) 책을 많이 읽은 유아들은 수용어휘능력(신혜영, 김명순, 2008; Frijters, Barron, & Brunello, 2000)과 표현어휘능력(장유경, 최유리, 이근영, 2007)이 모두 우수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요약하면 영아, 어머니, 가정환경의 다양한 특성들이 영아의 어휘습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의 영향을 보여주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개별 특성들에 초점을 맞춘 독립적인 연구들로 개별의 특성들이 각각 영아의 어휘습득과 관계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 어휘습득의 상황에서는 영아, 어머니,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함께 작용을 하여 어휘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개별적으로는 어휘습득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다른 특성들과 함께 고려할 때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거나 없는 특성들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

하에 영아, 어머니, 가정환경의 다양한 특성들을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어휘습득의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휘의 분절과정에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반복되는 음절의 일반적인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어휘를 여러 번 듣는 기회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특성들에 비해 더 중요할 수 있다. 어휘와 참조물의 대응을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의도가 잘 전달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기존 연구들에 참여한 영아들의 연령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어휘가 급증하는 시기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이상의 특성들을 동시에 고려해 봄으로써 동일 연령의 영아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아의 어휘폭발기(장유경, 2004)에 해당하는 24개월 영아들을 대상으로 이 시기 영아들의 어휘발달에 영향을 주는 영아, 어머니,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영아기의 언어발달, 특히 어휘발달에 대한 조기 중재를 계획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특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방 법

### 연구대상

18개월, 24개월에 모두 연구에 참여한 영아 320명(남:180, 여:140)과 그들의 어머니가 본 연구의 대상이었다.

### 측정도구

#### 영아의 특성

1) 어휘발달: 유아의 표현어휘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서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 (이하 MCDI; Fenson, Dale, Reznick, Thal, Bates, Hartung, Pethick, & Reilly, 1993)의 한글판(배소영, 2002)을 사용하여 18개월과 24개월에 표현어휘수를 측정하였다. 유아용 어휘체크리스트는 소리, 탈것, 장난감 및 문구류, 동물, 음식, 옷 등 24개의 범주의 총 641개의 어휘로 구성되었다.

2) 기질: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Toddler Temperament Scale(TTS)을 백경숙(199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TTS의 구성차원은 활동성(Activity, 10문항), 접근-회피(Approach-Withdrawal, 9문항), 적응성(Adaptability, 9문항), 반응강도(Intensity, 10문항), 기분(Mood, 13문항)이며 총 51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Cronbach  $\alpha=.80$ 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기질의 차원 중 활동성(Activity)은 운동 행위(motor activity)를 말하며 아동이 목욕, 식사, 놀이 등을 하는 동안 신체 움직임이 활동적인가 활발치 못한가의 정도를 나타낸다. 활동성 점수가 높으면 영아가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신체움직임이 활발한 것을 의미한다.

접근-회피(Approach-Withdrawal)는 새로운 음식, 장난감, 사람에 대한 초기 반응을 의미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기분 표현(울음, 떠들기, 부정적인 언어 표현과 표정)과 부정적인 운동 행위(물러나기, 밀어내기)등의 회피반응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적응성(Adaptability)은 새로운 또는 변화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장기적 반응(long term response)이다.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아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되는 데 용이한 정도를 나타내

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반응강도(Intensity)는 자극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의 에너지 수준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반응 표현이 격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분(Mood)은 긍정적으로 즐거운, 기쁜 그리고 우호적인 행동과 기분을 우세하게 나타내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불유쾌한 울음이나 덜 우호적인 행동을 나타내는지를 말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불쾌한 기분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3) 청각기억능력: 유아들의 청각기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Wagner와 Torgesen(1987)이 음운 인식 능력의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과제들을 장유경, 최유리와 이근영(2007)이 24개월 유아의 수준에 맞게 변형한 다음의 세 가지 과제를 사용하였다. 듣고 따라하기 과제(이하 HR)는 서로 다른 길이의 숫자, 음절, 혹은 단어들을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유아가 기억해서 말하도록 하였다. 패턴반복 과제(이하 PR)에서는 검사자가 책상을 두드리는 패턴을 유아가 듣고 소리의 패턴을 기억하여 재연하도록 하였다. Corsi블록 과제(이하 CO)는 검사자가 사물의 그림을 순서대로 말하면서(예: 나무-차) 손가락으로 짚으면 유아도 그 순서를 기억했다가 동일한 순서로 그림을 짚도록 하였다. 세 과제 모두 한 음절 또는 패턴 한 개를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수준이 높아졌으며 각 수준은 3회의 시행으로 구성되었다. 각 시행마다 정확하게 따라하거나 말하면 1점, 그렇지 못하면 0점을 주었다.

### 어머니의 특성

1)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량: 어머니가 영아에게 글 없는 그림책을 10분 동안 읽어주도록 하고 이를 촬영하고 녹화한 자료에서 어머니의 발화를 전

사하여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량은 어머니의 총 발화 수로 측정하였다. 여기서 발화란 말끝을 내리거나, 쉬거나, 혹은 다른 생각이 난 표시로 숨을 쉬는 것과 같은 행동에 의해 서로 분리되는 문장이나 그보다 더 짧은 말이다(Owens, 1992). 예를 들면, “갓대, 그래서 만났대”가 각각의 발화로 분석되어 2개의 발화로 기록된다.

2)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 어머니의 입력량을 분석한 동일한 자료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지연, 이근영과 장유경(2004)의 분류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언어를 주의환기, 설명하기, 지시하기, 질문하기, 피드백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석 기준에 대한 3명의 분석자간의 일치도는 90%였다.

주의환기는 주의를 끌거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소리나 발화를 말한다(예: ‘우와’, ‘여기 봐’). 설명하기는 사물의 이름이나 속성, 기능을 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예: ‘이긴 베게네’, ‘이긴 잠 잘 때 베고 자는 거야’). 지시하기는 영아에게 언어적, 행동적 반응을 요청하는 발화를 말한다(예: ‘안녕해 봐’). 질문하기는 영아에게 폐쇄형이나 개방형의 질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예: ‘우리도 동물원에 갔어?’). 마지막으로 피드백은 영아의 언어적 행동에 대한 반응이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한다(예: ‘그래 물이야’, ‘옳지 잘 했어’).

###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1) 부모의 교육수준: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부터 대학원졸 이상까지 4점 척도로 구성하여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2) 월 소득: 월 소득은 월 100 만원 이하부터 500 만원 이상까지를 100 만원 단위로 5점 척도로 구성하여 반응하도록 하였다.

3) 도서구입비: 가정의 문해환경을 알아보기 위

해 아동용 도서의 수를 측정하는 대신 지난 달 지출한 아동용 도서구입비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이는 조사 대상 영아들의 집을 방문해 본 결과 보유한 도서의 수를 쉽게 세기 어려웠고, 월 평균 도서구입비의 경우를 묻는 경우도 실질적 사용 비용보다는 대략적인 짐작으로 기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 연구 절차

영아가 18개월과 24개월일 때에 자료 수집을 위해 아동발달관련 석사 이상의 검사자들이 영아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18개월에는 MCDI 어휘체크리스트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묻는 질문지에 어머니들이 응답하였다. 24개월에는 검사자들이 직접 청각기억과제를 실시하였고 그 동안 어머니들은 MCDI 어휘체크리스트와 영아의 기질척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묻는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그 다음 어머니가 영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장면을 10분 동안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책 읽기 동안 어머니의 발화는 이후에 모두 전사하여 입력량과 상호작용 유형을 분석하였다. 18개월 표현어휘를 제외하고 기질, 청각기억,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등의 독립변인이 모두 24개월에 측정되었다. 종속변인이 24개월 표현어휘이므로 독립변인들이 발달적으로 더 빠른 시기에 측정되면 종속변인을 예측할 수 있겠으나 특히 청각기억과제는 24개월 이전에는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변인들도 24개월에 함께 측정하였다.

## 결 과

### 영아, 어머니, 가정환경의 특성

영아와 어머니,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에 대

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18개월과 24개월에 영아들은 각각 평균 48.40개( $SD = 62.90$ )와 237.67개( $SD = 164.30$ )의 표현어휘를 가지고 있다. 표현어휘수는 6개월 만에 평균 189개나 증가했는데 이 보다 더 작은 표본을 이용한 횡단 연구 자료(장유경, 2004)에서는 18~36개월 중에 가장 많은 수의 표현어휘가 증가한 시기가 23개월에서 24개월 사이였다. 18개월의 표현어휘는 최소 0개부터 최대 372개까지 분포하였는데 비해 24개월에는 최소 0개부터 최대 631개로 그 차이가 더 벌어져서 24개월경에 개인차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아의 성별로는 24개월 때 여아의 표현어휘수가 296.74( $SD=151.52$ ), 남아의 표현어휘수가 191.73개( $SD=159.46$ )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은 표현어휘를 가지고 있었다,  $F(1, 318) = 35.66, p < .01$ .

영아들의 청각기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세 과제들의 수행을 보면 말소리 따라하기(HR) 과제의 경우 만점 12점에 평균 2.29( $SD=2.68$ ), 패턴반복(PR) 과제는 만점 12점에 평균 0.44( $SD=.73$ ), Corsi 블록(CO)과제는 만점 24점에 평균 2.41( $SD=2.41$ )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3~20%의 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24개월 영아들의 청각기억 과제 수행력은 낮은 수준이며, 세 과제 중 말소리 따라하기 과제에서 개인별 점수 차이가 가장 컸다.

영아의 기질은 활동성이 2.43( $SD=.32$ ), 접근회피가 2.34( $SD=.49$ ), 적응성이 2.27( $SD=.32$ ), 반응강도가 2.79( $SD=.32$ ), 기분이 2.05( $SD=.29$ )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량과 상호작용의 유형을 살펴보면 어머니들의 총 발화수는 평균 207.51( $SD=68.56$ )이었고 10분의 책 읽기 상호작용 동안 가장 작게는 11개의 발화를 한 어머니가 있었고 가장 많이는 431개의 발화를 한 어머니가 있어서 어머니들의 발화 수에도 개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영아, 어머니,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N	평균(M)	표준편차(SD)
종속 변인	1. 24개월 표현어휘	320	237.67	164.30
	영아특성			
	2. 성별 (남 1, 여 2)	320		
	3. 활동성	320	2.43	0.32
	4. 접근-회피	320	2.34	0.49
	5. 적응성	320	2.27	0.32
	6. 반응강도	320	2.79	0.32
	7. 기분	320	2.05	0.29
	8. Corsi 블록 과제	311	2.41	1.90
	9. 듣고 따라하기	310	2.29	2.68
	10. 패턴 반복하기	309	.44	0.73
	11. 18개월 표현어휘	320	48.39	62.90
독립 변인	12. 주의환기	302	17.08	15.60
	13. 설명하기	302	102.02	39.99
어머니 특성 (단위: 빈도)	14. 지시하기	302	11.32	10.46
	15. 질문하기	302	58.78	26.14
	16. 피드백	302	18.31	19.64
	17. 발화 수	302	207.51	68.56
	18. 부 교육	260	3.71	0.96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19. 모 교육	273	3.52	0.94
	20. 월 소득	318	3.78	1.21
	21. 도서관구입비 (단위: 천원)	266	111.17	222.16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 중에서는 주의 환기 17.08( $SD=15.60$ ), 설명 102.02( $SD=39.99$ ), 지시 11.32( $SD=10.46$ ), 질문 58.78( $SD=26.14$ ), 피드백이 18.31( $SD=19.64$ )로 나타났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평균 3.71( $SD=.96$ ),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3.52( $SD=.94$ )이었으며 전문대졸 이상이 아버지의 경우, 79.6%, 어머니는 76.2%였다. 월 소득의 평균은 3.78( $SD=1.21$ )로 월 소득 100만원 이하가 0.6%, 101~200만원이 11.6%, 201~300만원이 35.2%, 301~400만원이 26.1%, 401~500만원이 14.5%, 501만원 이상이 11.9%에 해당하였다. 연구 당시 도시가계 평균 소득이 3,443,933원(통계청, 2006)인 것을

감안할 때 약 65% 이상이 중류 및 그 이상에 해당하였다. 또한 각 가정에서 아동을 위해 지출하는 월 도서관구입비는 평균 111.17(천원)( $SD=222.16$ )이었다.

#### 영아, 어머니,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간의 상관관계

영아, 어머니,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24개월 표현어휘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영아의 개인적 특성들은 서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영아의 성별은 기질의 차원들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청각기억 과제들인 Corsi 블록과제(CO)( $r=.18, p<.01$ ), 듣고

따라하기 과제(HR)( $r=.26, p<.01$ )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어 여아일수록 청각기억 과제의 수행이 높았다. 영아의 기질 중 활동성은 접근회피( $r=-.13, p<.05$ ), 적응성( $r=.36, p<.01$ ), 반응강도( $r=.23, p<.01$ )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접근회피와 적응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적이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활동성이 높을수록 회피가 적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반응강도도 높았다. 접근회피는 기분( $r=.50, p<.01$ )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기분도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기분을 의미하므로 회피가 높을수록 기분이 부정적이었다. 적응성은 반응강도( $r=.23, p<.01$ ), 기분( $r=.48,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수록 반응강도도 높고 기분도 부정적이었다. 반응강도는 기분( $r=.14, p<.05$ )과 정적 상관을 보여서 반응강도가 높을수록 기분이 부정적이었다.

어머니의 책 읽기 상호작용 유형 중에서 주의환기는 설명( $r=.42, p<.01$ ), 피드백( $r=-.12, p<.05$ ), 발화 수( $r=.48, p<.01$ )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고 설명하기는 지시( $r=.21, p<.01$ ), 질문( $r=.26, p<.01$ ), 발화 수( $r=.83, p<.01$ )와 지시하기는 피드백( $r=.13, p<.05$ )과 발화 수( $r=.38, p<.01$ ), 질문하기는 설명( $r=.26, p<.01$ ), 피드백( $r=.22, p<.01$ ), 발화 수( $r=.63, p<.01$ )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양인 발화 수는 모든 상호작용 유형과 정적 상관이 있는 가운데 설명하기와는 .83의 매우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대체로 언어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지만 특히 설명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호작용의 유형들 간에는 대체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예외적으로 주의환기가 많을수록 피드백이 적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들 간에는 부 교육이 모

교육( $r=.57, p<.01$ ), 월 소득( $r=.35, p<.01$ )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고, 모 교육도 월 소득( $r=.35,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도서구입비는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영아의 특성과 어머니,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간의 관계를 보면 성별은 어머니의 특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계가 없었다. 영아의 기질 중에서는 적응성이 유일하게 어머니의 질문( $r=-.18, p<.01$ ), 모 교육과 부적상관( $r=-.12, p<.01$ )을 나타내어 질문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그들의 영아들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4개월 MCDI 표현어휘와 영아, 어머니, 가정환경 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영아의 특성과 MCDI 표현어휘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24개월 MCDI 표현어휘는 영아의 성별( $r=.32, p<.01$ )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여아들이 더 표현어휘가 많았다. 영아의 기질 중에서는 활동성( $r=-.19, p<.01$ ), 적응성( $r=-.16, p<.01$ ), 기분( $r=-.15, p<.01$ )과 24개월 MCDI 표현어휘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영아의 활동성이 낮을수록, 적응하는 데 시간이 적게 걸릴수록, 기분이 유쾌할수록 표현어휘가 더 많았다. 24개월의 MCDI 표현어휘는 또한 영아의 청각기억능력을 측정하는 Corsi 블록( $r=.26, p<.01$ ), 듣고 따라하기(HR)( $r=.57, p<.01$ ), 패턴반복(PR)( $r=.23, p<.01$ ) 과제의 수행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18개월 MCDI 표현어휘수( $r=.51, p<.01$ )와도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즉, 청각기억 능력이 높을수록, 18개월 MCDI 표현어휘가 많을수록 24개월 MCDI 표현어휘가 많았으며 특히 24개월 MCDI 표현어휘와 듣고 따라하기와의 상관은 18개월 MCDI 표현어휘와의 상관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표 2. 영아, 어머니,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32**	1																		
3	-.19**	-.11	1																	
4	-.01	.08	-.13*	1																
5	-.16**	.05	.36**	.28**	1															
6	-.03	.03	.23**	.00	.23**	1														
7	-.15**	-.05	.08	.50**	.48**	.14*	1													
8	.26**	.18**	-.08	-.05	-.08	.02	-.04	1												
9	.57**	.26**	-.14*	-.11	-.01	-.05	-.12*	.41**	1											
10	.23**	.08	-.08	.03	.02	.02	-.06	.40**	.39**	1										
11	.51**	.23**	-.13*	-.02	-.05	.01	-.10	.02	.34**	.05	1									
12	-.07	-.07	.11	-.05	.06	-.04	.00	.04	-.09	-.07	-.11	1								
13	.07	-.01	-.01	-.01	-.02	-.11	-.08	.04	-.05	-.02	-.02	.42**	1							
14	.03	.02	.03	-.08	-.06	-.03	-.05	-.07	-.03	-.10	-.05	.11	.21**	1						
15	.20**	.06	-.07	-.04	-.18**	-.07	-.08	.12*	.10	.01	.11	.07	.26**	.10	1					
16	.15**	.08	.08	-.08	.02	.06	.02	.03	.13*	.03	.03	-.12*	.05	.13*	.22**	1				
17	.15**	.03	.02	-.07	-.07	-.08	-.08	.08	.02	-.03	.01	.48**	.83**	.38**	.63**	.39**	1			
18	-.02	.06	-.07	-.07	.03	-.03	.04	.20**	.02	.06	-.11	-.03	.04	.08	.04	.08	.07	1		
19	.04	-.06	-.06	-.09	-.12*	-.10	-.08	.08	.03	.02	-.11	.05	.07	.06	.09	.03	.10	.57**	1	
20	.15**	.13*	.07	-.02	.03	.14*	.01	.09	.07	.09	-.04	.01	.00	.01	-.03	-.04	-.02	.35**	.35**	1
21	.15**	-.05	-.01	-.09	-.03	.07	-.01	-.05	.01	-.10	.09	-.08	.08	.08	.03	.04	.04	.07	.07	.05

1. 24개월 표현어휘 2. 성별 3. 활동성 4. 잠근회피 5. 작용상 6. 반응강도 7. 기분 8. CO 9. HR 10. PR 11. 18개월 표현어휘 12. 주의환기 13. 설명 14. 지시 15. 질문 16. 피드백 17. 모 발화 수  
18. 부 교육 19. 모 교육 20. 월 소득 21. 도서구입비 \* $p < .05$ . \*\* $p < .01$ .

표 3. 영아의 표현어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N=320$ ) (Method= Stepwise)

독립변인	$B$	SE	$\beta$	$t$
듣고 따라하기	26.89	2.91	.44	9.24**
18개월 표현어휘	.92	.12	.36	7.64**
적응성	-8.2	2.47	-.15	-3.32**
월 소득	19.80	5.94	.15	3.33**
모 발화 수	.31	.10	.13	2.96**
도서구입비	.08	.03	.10	2.34*
(상수)	149.94	60.57		.01*

$F(6,237) = 47.70^{**}$ ,  $R^2(\text{adj } R^2) = .55(.54)$

\*  $p < .05$ . \*\*  $p < .01$ .

한편 24개월 MCDI 표현어휘는 어머니의 특성 중 질문( $r=.20$ ,  $p<.01$ ), 피드백( $r=.15$ ,  $p<.01$ ), 발화수( $r=.15$ ,  $p<.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서 어머니가 질문과 피드백을 많이 하고 발화수가 많을수록 영아의 표현어휘수도 많았다. MCDI 표현어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는 월 소득( $r=.15$ ,  $p<.01$ ), 도서구입비( $r=.15$ ,  $p<.05$ )와 정적 상관이 있어서 월 소득이 높고, 도서구입비가 많을수록 표현어휘수가 많았다. 특히 도서구입비는 24개월 표현어휘수 외에는 영아나 어머니의 특성들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 영아, 어머니,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24개월 표현어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영아, 어머니,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영아의 표현어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4개월 MCDI 표현어휘와 유의한 상관이 나왔던 특성들을 독립변수로, 24개월 MCDI 표현어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아의 성별, 기질 중 활동성과 기분, Corsi 블록과제, 패턴반복과제, 어머니의 질문하기와 피드백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듣고 따라하기(HR), 18개월 MCDI 표현어휘, 적응성, 월 소득, 모 발화 수, 도

서구입비가 포함된 모델이 유의하였다,  $F(6, 237) = 47.70$ ,  $p<.01$ . 이상의 특성들은 24개월 영아의 표현어휘의 변량 중 55%(adj  $R^2=.54$ )를 설명하였다. 회귀모델에서 유의하게 나온 개별 특성들의 설명력을 보면, 듣고 따라하기( $\beta=.44$ ), 18개월 MCDI 표현어휘( $\beta=.36$ ), 월 소득( $\beta=.15$ ), 적응성( $\beta=-.15$ ), 모 발화 수( $\beta=.13$ ), 도서구입비( $\beta=.10$ )의 순으로 나와서 듣고 따라하기의 청각기억 능력이 24개월 표현어휘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에서 공차한계는 모두 1에 근접하고 있어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 통계값은 2.2로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아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24개월 영아의 표현어휘 발달과 관계가 있는 영아, 어머니,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특성 중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것처럼 성별, 기질, 청각기억능력이 표현어휘의 발달과 관계되었다. 우선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은 어휘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장유경, 2004; Caselli, Casadio, & Bates, 2001; Huttenlocher, Haight, Bryk, Seltzer, & Lyons, 1991; Koeninsknecht & Friedman, 1976; Morisset, Barnard, & Booth, 1995; Schachter, Shore, Hodapp, Chalfin, & Bundy, 1978)와 일치한다. 언어발달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원인은 언어 환경적인 원인과 생물학적인 원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언어 환경적인 원인으로 볼 때, 영아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들이 여아에게 더 많은 언어적 입력을 제공한다는 결과도 있지만(Cherry & Lewis, 1978) 성별에 따라 언어적 입력량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결과(Huttenlocher et al., 1991)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성별과 어머니의 발화 수나 상호작용 시 언어 유형은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성차의 원인을 언어적 입력량의 차이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성차에 대한 생물학적인 이유로는 어휘습득에는 서술적 기억이 중요하고 특히 여아들이 서술적 기억과제의 수행이 높으며(Ullman, Estabrooke, Steinhauer, Brovotto, Pancheva, Ozawa, Mordecai, & Maki, 2002) 이에 에스트로겐이 관계됨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Wooley & Schwartzkroin, 1998). 본 연구에서 여아들이 청각 기억과제에서 듣고 따라하기나 Corsi블록과제에서 남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은 이러한 생물학적인 차이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영아의 기질 차원 중에서는 활동성이 낮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고, 기분이 유쾌할수록 표현어휘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 역시 감정-외향성 점수가 높을수록(Slomkowski, Nelson, Dunn & Plomin, 1992) 언어발달이 앞서고, 영아의 적응성, 긍정적인 기분, 지속성이 표현어휘의 발달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Dixon & Shore, 1997; Dixon & Smith, 2000)과 일치한다. 이는 영

아가 기분이 긍정적이고 적응력이 좋을수록 새로운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빈번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장유경, 이근영, 최유리, 이순묵, 2007). 또한 활동성이 높은 것은 까다로운 아이의 한 특징으로 활동성이 높으면 주의집중이 힘들고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김연, 황혜정, 2008). 따라서 활동성이 낮고 새로운 상황에 빨리 적응할수록 정신적 에너지를 어휘의 습득과 사용이라는 과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장유경, 이근영, 최유리, 이순묵, 2007).

마지막으로 청각기억능력이 높을수록 표현어휘가 많았으며 이는 청각기억 능력이 4~5세 이후에 읽기능력의 발달과 관계된다는 결과(김선옥, 공숙자, 조희숙, 2004; 김현자, 조증열, 2001; 홍성인, 2001; Siegel & Ryan, 1988; Jackson, Donaldson, & Cleland, 1988)와 더불어 읽기발달 이전의 언어 발달에도 관계됨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특성 중에서는 어머니의 질문과 피드백이 표현어휘의 발달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이는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이 영아의 어휘발달과 관계되었던 선행연구(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Hart & Risley, 1995; Whitehurst 등, 1988)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특히 놀이상황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했을 때에도 어머니의 질문하기와 피드백은 영아의 어휘발달에 관계되었다(장유경, 홍세희, 이근영, 2007).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 양, 즉, 발화 수 역시 영아의 표현어휘 발달과 관계되었으며 이러한 결과 역시 어머니의 입력 양이 많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할수록 영아의 표현어휘가 많고(장유경, 이근영, 곽금주, 성현란, 2003), 영아의 어휘습득 순서가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의 빈도에 의해 예측된다(Huttenlocher et al., 1991; Naigles & Hoff-Ginsberg, 1998)는 선행연구의 결

과들과 일치한다.

셋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는 가정의 월 소득과 도서구입비가 많을수록 영아의 표현어휘가 많았다. 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아동의 언어발달이 관계된다는 많은 결과들(이지연, 곽금주, 2008; Brooks-Gunn, Duncan, & Britto, 1999; Raviv, Kessenich, & Morrison, 200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이나 언어적 입력 양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에게 더 많은 말을 하고 더 다양한 어휘와 복잡한 문법을 사용하며 대화를 유도하는 질문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Hoff-Ginsberg, 1998; Brophy, 1970)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Hoff, Laursen, & Tardiff, 2002)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특성 중 가장 강력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본 연구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에 다양한 교육 수준의 어머니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 참여 어머니들의 76.2%가 전문대졸 이상이었으므로 전반적으로 어머니들의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넷째, 회귀분석의 결과 24개월 표현어휘를 설명하는 특성들은 청각기억능력 중 듣고 따라하기, 18개월 표현어휘, 영아의 적응성, 어머니의 발화 수와 월 소득이었다. 이들은 함께 24개월 표현어휘의 55%를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이 특성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면 가장 영향이 큰 특성은 듣고 따라 하기의 청각기억능력이었다.

듣고 따라 하기는 18개월 표현어휘를 제외한 영아의 기질 적응성, 월 소득, 어머니의 발화 수, 도서구입비 각각의 영향력과 비교할 때 다른 개별 특성들에 비해 약 3배 이상에 해당하는 큰 영향력

을 가지고 있었다. 듣고 따라 하기가 24개월의 표현어휘의 발달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이 시기의 특성과도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4개월은 한국 영아들에게 있어 어휘폭발 직후의 시기로서 하루에도 3~4개의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는 시기이다. 새로운 어휘를 듣고 의미를 대응시키기 위해서는 들은 내용을 청각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음절 뿐 아니라 말소리의 작은 단위인 음운을 기억하는 음운기억 능력이 모국어와 제2언어를 습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O'Brien, Segalowitz, Collentine, & Freed, 2006)와도 일치한다.

영아의 적응성 역시 청각능력보다는 작지만 표현어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영아의 능력이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어휘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도왔을 것으로 생각된다(Dixson & Smith, 2000; Slomkowski et al., 1992).

어머니의 특성도 유의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의 질문과 피드백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오직 발화 수의 영향만이 유의했다. 이는 18~29개월 영아들과 어머니의 자유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입력 양과 상호작용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입력 양만이 영향력을 가진다는 선행연구(Hoff & Naigles, 2002)의 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의 입력의 양이 많으면 영아가 동일 어휘라도 듣는 빈도가 많아지면서 말소리 중에서 특정 어휘들을 분절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또한 동일한 어휘가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맥락에서 제시되면 매번 제시될 때마다 어휘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더해지기 때문에 특정 어휘를 습득하고 기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Fisher, Hall, Rakowitz, & Gleitman, 1994). 이와 더불어 입력의 양이 많아지

면 영아들이 다양한 어휘들에 노출되게 되고 이때 입력되는 어휘의 다양성과 풍부함이 영아의 어휘 발달을 돕는다(Hoff & Naigles, 2002). 한편 어머니의 질문과 피드백이 표현어휘 발달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의 영향을 보고한 결과들(장유경, 홍세희, 이근영, 2007;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Hart & Risley, 1995; Whitehurst 등, 1988)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이 시기 어머니의 질문은 영아가 이미 알고 있는 어휘를 질문하는 것으로 새로운 어휘의 습득을 돕기 보다는 영아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의사소통 상호작용에 참여하도록 동기화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Hoff & Naigles, 2002).

마지막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 월 소득과 도서구입비가 표현어휘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의 구성과 독립적으로 2~5세 유아의 언어점수의 큰 부분을 설명하며(Brooks-Gunn, Duncan, & Britto, 1999) 월 소득이 많을수록 가정의 인지적 환경이 우수하고 어머니의 민감성이 높으며 이것이 유아의 표현어휘와 이해어휘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Raviv, Kessenich, & Morrison, 2004). 본 연구에서 가정의 월 소득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부모의 교육수준 외에도 본 연구에서 측정하지 않은 다른 부모의 특성(예: 어머니의 민감성)들을 통해 영아들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도서구입비는 가정의 문해환경을 반영하는 지표로 책을 많이 읽어준 영아들의 언어능력이 우수하다는 많은 결과들(신혜영, 김명순, 2008; 장유경, 최유리, 이근영, 2007; Frijters, Barron, & Brunello, 2000; Sénéchal, LeFevre, Hudson, & Lawson, 1996)과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영아들의 언어발달을 위한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청각능력의 훈련이라고 생각된다.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쉽게 할 수 있는 말놀이 게임 등을 통해 영아들의 청각기억 능력을 훈련한다면 어휘습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서 어머니의 입력 양을 늘리는 방법으로 책 읽기를 더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양한 책을 자주 읽으면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량이 증가하고 다양한 어휘들이 입력될 것이며 이것들이 함께 영아의 어휘발달을 도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어휘폭발 직후 24개월의 표현어휘 습득과 관련된 특성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어휘습득의 시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특성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향후 어휘습득의 다양한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들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진행되면 연령별로 강조점이 다른 차별화된 언어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김선옥, 공숙자, 조희숙 (2004). 음운처리과정이 4세와 5세 유아의 읽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 37-56.
- 김연, 황혜정 (2008). 유아 기질 및 심리적 가정환경 변인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8, 23-49.
- 김현자, 조증열 (2001). 학령 전 아동에서 음운인식, 시지각 및 한글 읽기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 15-28.
- 백경숙 (1996). 영유아의 종일제 모육시설 적응에

-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배소영 (2002). 유아용 어휘체크리스트. 한국영어 발달연구센터.
- 신혜영, 김명순 (2008). 저소득 가정 부모의 문해 발달 태도 및 가정 문해활동과 유아의 어휘력, 인쇄물 개념간의 관계. *한국 아동학회지*, 29, 199-212.
- 이지연, 곽금주 (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 151-165.
-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어머니의 책임기 상호작용 유형이 영아의 초기 어휘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 131-146.
- 장유경 (2004). 한국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 18개월~36개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 91-105.
- 장유경, 이근영 (2006). 영아의 기질과 초기 어휘 습득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7, 263-276.
- 장유경, 이근영, 곽금주, 성현란 (2003).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영아의 초기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 227-241.
- 장유경, 이근영, 최유리, 이순목 (2007). 18-24개월 영아의 기질과 어휘습득: 단기중단적 연구. *인간발달연구*, 14, 23-42.
- 장유경, 이순목, 최유리 (2007). 초기 어휘습득에서 성차와 어휘종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 117-136.
- 장유경, 임현정, 곽금주 (2004). 언어적 입력의 품사가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 105-120.
- 장유경, 최유리, 이근영 (2007). 24개월 영아의 어휘습득, 책임기 활동과 청각기억 능력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 51-65.
- 장유경, 홍세희, 이근영 (2007). 어휘습득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의 양과 상호작용의 영향 다층모형의 적용. *한국아동학회지*, 28, 109-126.
- 통계청 (2006). 도시가계 월평균 소득.
- 홍성인 (2001). 한국아동의 음운인식 발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nasich, A. A., & Tallal, P. (2002). Infant discrimination of rapid auditory cues predicts later language impairment. *Behavior and Brain Research*, 136, 31-49.
- Bloom, L., Beckwith, R., & Capatides, J. (1988). Developments in the expression of affec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1, 169-186.
- Bornstein, M. H. (2002). Parenting infant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2nd eds.). Mahwah, NJ: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 Brody, G. F. (1968).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stated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and in observed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656-660.
- Brooks-Gunn, J., Duncan, G. J., & Britto, P. R. (1999). Are socioeconomic gradients for children similar to those for adults? Achievement and health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In D. P. Keating & C. Hertzman(Eds.), *Developmental health and the wealth of nations: Social, biological, and educational dynamics*(pp.94-124).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rophy, J. E. (1970). Mothers as teachers of their own preschool children: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status and task structure on teaching specificity. *Child Development*, 41, 79-94.

- Bus, A. G., van IJzendoorn, M. H., & Pellegrini, A. D. (1995). Joint book reading makes for success in learning to read: A meta-analysis o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literac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5*, 1-21.
- Caselli, M. C., Casadio, P., & Bates, E. (2001). Lexical Development in English and Italian. In M. Tomasello & E. Bates (Eds.), *Language Development: The Essential Reading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Cherry, L., & Lewis, M. (1978).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girls and boys: Implications for sex differences in language development. In N. Waterson & C. Snow (Eds.),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pp. 189-197). New York: Wiley.
- Dixon, W., & Shore, C. (1997). Temperamental predictors of linguistic style during multiword acquisit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0*, 99-103.
- Dixon, W., & Smith, P. H. (2000). Links between early temperament and language acquisi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6*, 417-440.
- Dunn, J., Wooding, C., & Herman, J. (1977). Mothers' speech to young children: Variation in context.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19*, 629-638.
- DeBaryshe, B. D. (1993). Joint picture-book reading correlates of early oral language skill. *Journal of Child Language, 20*, 455-461
- Fenson, L., Dale, P., Reznick, S., Bates, E., Thal, D., Hartung, J., & Reilly, J. (1993).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 User's Guide and Technical Manual*. Singular Publishing Group, Inc.
- Fernald, A., & Morikawa, H. (1993). Common themes and cultural variation in Japanese and American mothers' speech to infants. *Child Development, 64*, 637-656.
- Fisher, C., Hall, G., Rakowitz, & Gleitman, L. (1994). When it is better to receive than to give: Syntactic and conceptual constraints on vocabulary growth. *Lingua, 92*, 333-375.
- Frijters, J. C., Barron, R. W., & Brunello, M. (2000). Direct and mediated influences of home literacy and literacy interest on pre-readers' oral vocabulary and early written language skil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 466-477.
- Gardner, H. (199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 Hart, B., & Risley, T. (1995).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everyday experience of young American children*. Baltimore: Brookes.
- Hoff-Ginsberg, E. (1998). The relation of birth order and socioeconomic order and socioeconomic status to children's language experience and language development. *Applied Psycholinguistics, 19*, 603-630.
- Hoff, E., Laursen, B., & Tardiff, T.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2nd eds.). Mahwah, NJ: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 Hoff, E., & Naigles, L. (2002). How children use input to acquire a lexicon. *Child Development, 73*, 418-433.
- Huttenlocher, J., Haight, W., Bryk, A., Seltzer,

- M., & Lyons, T. (1991). Early vocabulary growth: Relation to language input an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36-248.
- Huttenlocher, J., Vasilyeva, M., Cymerman, E., & Levine, S. (2002). Language input and child syntax. *Cognitive Psychology, 45*, 337-374.
- Jackson, N. E., Donaldson, G. W., & Cleland, L. N. (1988). The structure of precocious reading abi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234-243.
- Koenigsnecht, R., & Friedman, P. (1976). Syntax development in boys and girls. *Child Development, 47*, 1109-1115.
- Kuhl, P. K., Conboy, B. T., Padden, D., Nelson, T., & Pruitt, J. (2005). Early speech perception and later language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the 'critical period'. *Language Learning and Development, 1*, 237-264.
- Marchman, V. A., & Fernald, A. (2008) Speed of word recognition and vocabulary knowledge in infancy predict cognitive and language outcomes in later childhood. *Developmental Science, 11*, 9-16.
- Morisset, C. E., Barnard, K. E., & Booth, C. L. (1995). Toddlers' language development: Sex differences within social risk. *Developmental Psychology, 31*, 851-865.
- Naigles, L. R., & Hoff-Ginsberg, E. (1998). Why are some verbs learned before other verbs? Effects of input frequency and structure on children's early verb use. *Journal of Child Language, 25*, 95 - 120.
- Nelson, K. (1973). Structure and strategy in learning to talk.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8*(1-2, Serial No. 149).
- Ninio, A. (1983). Joint book reading as a multiple vocabulary acquisition device. *Developmental Psychology, 19*, 445-451.
- O'Brien, I., Segalowitz, N., Collentine, J., & Freed, B. (2006). Phonological memory and lexical, narrative, and grammatical skills in second language oral production by adult learners. *Applied Psycholinguistics, 27*, 377-402.
- Owens, R. E. (1992). *Language development: An introduction*(2nd ed.).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 Raviv, T., Kessenich, M., & Morrison, F. (2004). A mediational model of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three-year-old language abilities: the role of parenting facto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9*, 528-547.
- Schachter, F. F., Shore, E., Hodapp, R., Chalfin, S., & Bundy, C. (1978). Do girls talk earlier?: Mean length of utterance in todd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4*, 388-392.
- Sénéchal, M., & LeFevre, J., Hudson, E. & Lawson, P. (1996). Knowledge of storybook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vocabula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8*, 520-536.
- Siegel, L. S., & Ryan, E. B. (1988). Development of grammatical-sensitivity, phonological, and short-term memory skills in normally

- achieving and learning disabl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8-37.
- Sigel, I. E., McGillicuddy-De Lisi, A. A., & Johnson, J. E. (1980). *Parental distancing, beliefs, and children's representational competence within the family context*. Princeton, N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 Slomkowski, C. L., Nelson, K., Dunn, J., & Plomin, R. (1992). Temperament and language: Relations from toddlerhood to middle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090-1095.
- Ullman, M. T., Estabrooke, I. V., Steinhauer, K., Brovetto, C., Pancheva, R., Ozawa, K., Mordecai, K., Maki, P. (2002). Sex differences in the neurocognition of language. *Brain and Language*, 83, 141-143.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mental processes* (M. Cole, V. John-Steiner, S. Scribner, & E. Souberman, E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agner, R. K., & Torgesen, J. K. (1987). The nature of phonological processing and its causal role in the acquisition of reading skills. *Psychological Bulletin*, 101, 192-212.
- Wechsler, D. (1991). *Manual, WISC-III: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Third Edition*.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 Whitehurst, G. J., Falco, F. L., & Lonigan, C. J., Fischel, J. E., Debaryshe, B. D., Valdez-Menchaca, M. C., & Caufield, M. (1988). Accelerating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52-559.
- Wooley, C. S., & Schwartzkroin, P. A. (1998). Hormonal effects on the brain. *Epilepsia*, 39, 2-8.
- 

1차 원고 접수: 2011. 04. 15

수정 원고 접수: 2011. 05. 13

최종 게재 결정: 2011. 05. 14

#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Infants, Mothers, and Famil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Expressive Vocabulary Acquisition of 24-Month-Old Infants

Chang-Song, You Kyung

Dep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Sungkyunkwan University

Sung, Jihyun

Dep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Child Psychology &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infant, mother, and famil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expressive vocabulary acquisition of 24-month-olds. A sample of 320 infants and their mothers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infants' auditory memory (specifically, listening and repetition ability), the amount of expressive vocabulary at 18 months, adaptability, mothers' linguistic inputs, monthly family income, and the amount of monthly book expens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expressive vocabulary at 24 months of infant age in that order and together explained 55% of the variance of infants' expressive vocabulary. The implications on development of language program for young children were discussed.

*Keywords:* expressive vocabulary, auditory memory, adaptability, mothers' linguistic input,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